

대림 제 1 주일

기도서 P. 206 B회

제1독서 (이사 63, 16-17. 1, 3-8)

제2독서 (요한 1, 3-9)

복 음(마르코 13, 33-37)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1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잠을 깨시오

공 아 영 신부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깨어 있어라>고 권유하십니다.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육체적인 피로를 풀기 위한 잠입니다. 하루종일 열심히 일하고난 뒤의 잠. 이것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잠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잘못된 인정을 방해하는 무기력한 정신적인 잠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싶어하는 잠입니다.

주님께서 일곱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은 잠을 잤습니다. 자케오와 더불어 그의 집에서 식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자케오는 잠을 잤습니다. 성 바오로, 성녀 막달레나, 성 아우구스티노,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와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같은 분도 오랜 잠을 자다가 깨어 일어난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삽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잠을 자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옳은것을 찾는 유의한 시련을 당할때까지는 피로워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꿈에서 깨어날때부터 그들은 달라집니다. 잘못을 깨달은 그때부터 그들의 생활에는 철저한 변화가 생깁니다.

무심하게 잠을 자던 사람들도 그의 외아들이 죽었다거나, 집에 불이 났다면 잠에서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이 이 세상의 곤궁과 부정행위와 폭력과 굶주림을 널리 알려 주어도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불행이 우리에게 타격을 주지않는한 우리는 계속해서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밤을 새우는 것은 우선 잠을 깨는 것입니다. 밤을 새우는 것은 자기 옆에 이상한 것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또 밤을 새우는 것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찬이 밤을 새우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시대의 징조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데 있습니다.

오늘, 성 바오로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게 되었고, 모든 은총의 선물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받고>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 오늘부터 용기를 내십시오. 출저 말고 대림절을 지냅니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지금 우리를 찾아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노송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늘 깨어 있어라(1)

-미가 7,1-7(공동번역성서 P1549)

아, 답답하구나.
여름 과일을 따러 나갔다가,
포도 송이를 주우려 나갔다가,
먹을 만한 포도 송이 하나 얻지 못하고,
먹고 싶던 만물 무화과 하나 만나지 못하듯,
이 나라에선 하느님의 은덕을 보답하는 사람 만날 수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 찾아 볼 수 없구나.
모두가 피에 목말라 숨어서 남을 노리고
저마다 제 저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친다.
몹쓸 일에만 손을 대고
관리들은 값나가는 것 아니면 받지도 않으며,
재판관들은 뇌물을 주어야 재판을 하고
집권자는 멋대로 억울한 선고를 내리는구나.
조금 낫다는 것들이 가시덤불 뿐이요,
조금 바르다는 것들이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하구나
아, 부녀에서 형벌이 떨어져
이제 당장 혼란이 일어나리라.

이웃을 믿지 말라.
벗이라고 기대지 말라.
네 품에 안겨 자는 아내라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아들이 아비를 우습게 보고
딸이 어미에게 거역하며
며느리와 시어미와 맞서는 세상,
식구끼리 모두 원수가 되었다.

그러나 나만은 야훼를 우러르고
하느님께서 구해주시기를 기다리리라.
나의 하느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숲 정 이 산책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순정이 ◦ 순정이 ◦ 순정이 ◦ 순정이 ◦ 순정이 ◦ 순정이

<순정>을 낸지 여섯해가 지났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성원과 성령의 감도하심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축하해 주신 많은 글 가운데, 두 편만을 옮겨드립니다. 좁은 지면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보루

전 갑 균(라파엘)

순정여여!

당신의 창간 여섯해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순정이의 산파역을 맡은 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랍이 철신 소크라테스는 “나는 진리의 산파다”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당신, 순정이는 바로 진리의 산파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이 말하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그나마 좁은 창구명을 통하여 밖을 내다 보듯이 세상을 어렵듯이 이나마 알고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성당에 들어설 때 당신을 먼저 찾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부님의 강론 말씀보다 당신의 강론 말씀을 더 친근히 대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당신이 수난을 당할 때 우리도 함께 수난을 당해왔습니다. 당신은 진리요 길이요, 주님에게로 나가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지면)은 왜 그렇게 적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당신의 좁은 얼굴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신자들의 탓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題=순정)가 그러하듯이 당신은 수난의 상처요 진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원망도 했습니다. 좀더 소상히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사건들의 번죽만 건드리고 지나가는 것을. 그러나 그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정치가는 “신문이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순정! 당신은 바로 우리 신자들의 입이요 눈이요 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가냘프게 어둠속에서 비치는 조그만 희망의 화롯불이며, 우리의 참산양의 진리와 자유의 마지막 보루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듯이 순정!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종들의 영원한 역사의 발자취가 되리라 굳세게 믿으며, 당신의 전투를 비는 마음 저 파야란 하늘 끝보다 더 높습니다.

<덕진정당 전례위원장>

찬미 예수

송 윤 상(요셉)

먼저 <순정>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어떠한 역경이 <순정>을 때린다 해도 <순정>은 꺾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당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박해, 그리고 언론의 부정확등 여러가지의 탄압이 있지만 우리는 더욱 더 굳게 단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단체의 회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서울이나 전라도, 충청도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무슨 사건이 나도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하오니 <순정>에서 이를 보도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요사이 심화되고 있는 인권의 탄압 등에 대해서 더욱 더 정의의 불빛을 힘차게 흔들어 주시길 빕니다.

두서없이 쓴 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드림

순정이 발행중지 통고

—그 뒤안길

지난 10월28일 교구청에는 문화공보부장관 명의의 공문이 날아들었다. (발송일...10월19일, 공문번호...신문 1731-17383) 수신인은 오기(謬記)이겠지만 천주교 원주교구 사무처장 범석규 신부였다.

제목은 「미등록 불법 정기간행물 발행중지 통고」요, 내용인즉 “귀하가 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배하고 불법으로 정기간행물 순정(주간) 발행하고 있는바, 이는 불법 정기간행물임으로 법상 발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발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다. 물론 이를 위반하면 법적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가 따를을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는 순정이가 신자 및 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리지식·의식제발·정보교환(공지사항, 대화의 광장)을 목적으로 하기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혹시라도 이 조치가 종교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 만평(제311호)으로 우리의 뜻을 표했은 뿐이다.

문화공보부는 다시 11월 7일자로 공문(1731-1838)을 보내왔다. “단순히 당일의 예배순서 및 교회의 식에 관한 공지사항을 게재하는 간행물”은 등록할 필요성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다.

순정이 발행은 신앙활동의 연장일 따름이다.

수입악기 시판개시!

취급품목

- 피 아 노: ① 화려한 선율의 결정체 GORS & KALLMANN(독일)
- ② 122년의 전통과 우아한 품위의 WURLITZER(미국)
- 전자올개: 전자올개의 대명사 HAMMOND(미국)

서진 피아노 전주대리점 전화 ②4690

(구 삼남극장 사거리)

성 명 서

우리는 지금 당국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이 땅위에 바른 사회정의와 민주헌정이 구현되기를 기원하면서 교회에 대한 당국의 기만과 우롱하는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

지난 7·6 사태로 우리의 동료 박종상 신부가 경찰의 폭력과 구타로 유기의 만행을 당하고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은 현실집에서, 당국의 확실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국가안보적 차원이라는 미명아래 교회 사제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으며,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사실을 왜곡 보도하므로 교회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교회 기관지인 <순정이>를 압류 지연시키는 일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이에, 선의의 많은 백성들과 함께 더 이상 기만당할 수 없음을 밝히며, 다음의 요구사항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요 구 사 항

1. 교회 기관지 <순정이>를 압류 지연시키는 당국의 처사를 시정하라.
2. 성직자의 명의를 정치도구로 도용하지 말라.
3. 교회에 대한 사실 왜곡 보도를 해명하고 즉각 중단하라.

1978. 11. 29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 성명서가 나오게 된 경위

천주교구 사제단은 지난 11월 29일, 79년도 사목교서 연수회를 마친 뒤,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위와 같은 성명서를 내기로 하여, 29일 밤 중앙성당에서 있는 11월 정의평화 기원미사에서 이를 발표했다.

지난 7·6 사태 이후 순정의 발송사고가 없겠다고 약속한 당국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사고는 있었다. 지난주(11월 26일, 순정이 제314호)만 하더라도, 우송되는 30개 본당(전주시내는 직접 배달) 가운데 10개 본당(김제·부안·월평·대야·함평·화산·고산·금산·상관·장수)만이 공식미사 전까지 순정이를 받아 볼 수 있었다. 그나마 우체국에 가서 찾아온 본당이 7개본당이나 되었다. 머나먼 장수나 금산본당이 순정이를 볼 수 있었는데도 가까운 이리·군산에 순정이가 제날짜에 들어가지 못한 점은 납득이 어렵다.

또한 지역별 안보정세 보고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제들의 명단이 신문지상에는 참가한 양 보도된 사례가 허다하였다.

그리고, 교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성심여중·고와 해성중·교의 학교 분리문제에 대해 교구당국의 뜻과 다른 왜곡 보도가 잦아서 보도에 접하는 선의의 시민들을 의아하게 한 바도 있었다.

이에, 이러한 사정들을 모아 성명서를 내게 되었다.

요심이 (279) 김병오



□개업안내

둔율동 천주교 입구에 유미 미용실 설치 교우 여러분의 성원 바랍니다

유미미용실

대표: 최완선(울리바) 전화 ㉠ 3693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업(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개업안내

시내 중앙동에서, 재단 7년 경력으로 교우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하기 장소에 개업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우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용 회 (가브리엘)
☎ 2-6222 (전북신문 사거리)
에이스 양복점

충효사상을 지향하는 호도 관광의 선구자 노후 노약자 우대

- 남국의 진풍경 ○ 밀감의 원산지 항공편과 호화여객선 카레리호 겸용으로 제주도 (3박 4일)
- 매주 토요일 14:00출발 수안보 은천과 고수동굴·천동굴(1박 2일)
- 부곡온천과 해인사·성유굴·백암온천(2박 3일)
- 설악산·한려수도(2박 3일)
- 천주교 성지순례

최신형 관광버스 전세 환영
□ 기타 국내관광 문의환영
□ 호도관광 지정업체

삼남관광 여행사

삼남관광 주식회사

☎ ㉠ 4000 ㉡ 0994
㉢ 6006
대표이사 한 상 오
관광과장 범 석 배(머또)

☆ 사진예술 창조의 집 ☆
현대칼라 특약점 현대카메라 D·P점

現代人은, 現代칼라로, 現代카메라 D·P점에서 현상·인화·확대·카메라 대여 교우님들께 특별할인 합니다

T. ㉠ 6360 (전주 동양아파트 정문앞)
代表 홍성조(그레고리오)



◇ 가정용 목욕탕, 운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정읍대리점)

정읍전화 주간2719번 야간 4195번
대표: 고아오스님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교구 평협(平協) · 순정이 편집실, 교구청 16호실(前 응접실)로 사무실 이전(11월 28일)**
1979년도의 사목방침 「평신도 사도적 활동 육성의 해」로 정한 본 교구장 김재덕 주교님은, 보다 원활한 평신도 사도적 활동의 육성을 위해 교구청내에 평협과 순정이를 위한 독립 사무실을 주셨습니다. 아직 적용 전과는 없음을 다. 전화가 준비될 때까지는 교구청전화(3-3201, 509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1. **교구 평협 정기총회**…3일(일) 10시 30분까지 등록, 가톨릭 센터 회의실
※ 참가대상-① 각 분당 사도회장, ② 교구단위 액션 단체장, ③ 평협 상임위원
- 2. **동민회 지도자 교육**…7(목)-10(일), 가톨릭 센터
- 3. **지성인을 위한 신앙강좌**…8(금) 오후 7시 반, 가톨릭 센터
※ 주제-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 강사-박도식 신부(철학박사, 광주 대건신대 교수)
- 4. **혼인문제 상담일**…4(일) 오전 10시-오후 4시, 교구청
- 5. **군산신대 분당 연합 청년회 순회미사**…4(월) 오후 7시 반, 팔마성당
- **새 교황대사에 루치아노 안젤로니 대주교님 임명, 전임 도세나 대사님은 아프리카로**
- **앤네스티 전북지부 창립 1주년 기념 인권 강연회**…장소:가톨릭 센터
12월 4일(월) 오후 7시…연사:함석원 선생, 5일(화) 오후 7시…연사:고은 선생

중앙

주임 신부 서 용 복
보좌 신부 정 증 배
보좌 신부 범 영 배
사도 회장 이 부 석

전화 ③3651
③3874

1. 프란치스코 3회: 3일(일) 오후 1시30분
 2. 삼지화: 3일(일) 오후 2시
 3. 공소판공: 5일(화) 간중공소, 6일(수) 용흥공소
 4. 어머니 할찬당: 7일(목) 오전 10시
 5. 분당 판공성사: 19일(화)부터…
※ 고백성사 보실분은 성사표를 가지고 보세요
 6. **성탄 성가연습**
일시: 12월 4일~23일 오후 8시. 장소: 성당내 강당
대상: 어머니 성가대, 청년 성가대, 젊은이 누구나 환영
 7. 97차 이삭 공개 셀
일시: 12, 3 오후 2시, 장소: 교리실(중앙성당)
 8. **전례담당(공식미사)**
3일: 부사-박영근, 임주택, 해설-장남수
- **지난주 불현금: 181,483원**

3. 첫 영성체교리: 12월 4~23일, 오후 5~6시
 4.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5. 성우회 정기총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학생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학생성가대회 3위입상
- **지난주 불현금: 147,095원**

서화동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잠 춘

전화 ③2276

1. 사도회 월례회: 10시미사 후
 2. 공소판공: 5일-마음리, 6일-석구리, 8일-광곡리
 3. 성탄때 영세자 특별교리 9일부터~20일까지
매일 저녁 8~10시
 4. **신축연금 속히 완납합니다**
- **지난주 불현금: 37,435원**

순정이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전화 ③7366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각 세대주는 꼭 참석 바람
 2. 누깁다 유치원 겨울방학: 12월 10일
 3.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매주(목) 오후 2시30분
 4. 성령세미나: 12월 8일 오후 7시
 5. 금주 판공성사 일정안내
4일-서신동 1구, 5일-서신동 2구, 6일-태평동,
7일-진북 1동
- **지난주 불현금: 111,380원**

노송동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김 성 록

전화 ③ 7032

1. **애령회 창립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각 가정의 대표 1명씩 꼭 참석하세요
 2. **구역장, 반장 연석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중식은 분당에서 준비합니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성탄절행사 준비위원회 결성**: 위원장-박태복씨,
위원-박장춘, 최광석, 윤갑남 수고하시겠습니다
 4. **성모 원죄없으신 잉태 대축일**: 축일미사 8일 오전
10시 많이 참석하시기 바람
 5. **분당 신부님 영명축하 행사**: 오늘 공식미사 중에
많이 참석하시어 신부님의 영명을 축하해 주시고 아
울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6. **공소 판공일정**: 신원리공소-12월 5일, 다리리 공소
-12월 7일, 황윤리 공소-12월 8일
- **지난주 불현금: 88,865원**

전동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순 석
사도 회장 유 석 중

전화 ③3222

1. 사도회 월례회: 저녁미사 후
 2. 가정심방: 동·서완산동
 3. 유아세례: 2시미사 후
 4. 성화회: 10시미사 후
 5. 유치원 방학식: 12월 13일
 6. 첫 영성체교리: 월~토(오후 3시 30분)
 7. 영세자 교리: 주일 낮 수·목 저녁 7시 30분
 8. 성립공개 Cell: 3일 오후 3시 사제관 2층
 9. 판공성사: 16일부터 23일까지
- **지난주 불현금: 188,700원 주일금: 165,932원**

덕진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강 덕 행
사도 회장 유 제 상

전화 ③2182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미사후
 2. 분당내 판공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3. **젊은이 한마음**: 회장-이영남,
부회장-조찬남, 김현석
 4. **학생회 월례회**: 학생들은 미사후에 참석 바람
 5. **성물 판매**를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6. **전년도 교무금과 미납된 교무금을 완납**하세요
 7. 79년도 교무금 10/1조 청산에 의해 자진 선임바람
- **지난주 불현금: 125,725원**

파티마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현

전화 ②0915

1. 사도회 및 구역장 정기총회: 12월 3일 저녁미사 후
 2. 성령세미나: 79. 1. 4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 **부녀회 모임**: 주일 10시미사 후 회의실
 4. **수녀원 살림**: 은인께 감사합니다 다음주 계속…
중축기금: 김중순(발라바) 100,000원 누계: 777,000
살림마련: 한말미다-청소용구, 김소피아-휴지통,
황소피아-선장, 나안젤라-주전자, 임아네스-정반
양마리아-발삼, 송요안나-소쿠리, 백기철-김치통
김모니카-정래, 김은순-밥그릇, 이세시리아-수저
김베로니카-공기, 이안토니아-후라이팬
 5. **교무금**: 성탄전에 완납을… 금주납입: 이현자, 송누
지아, 조판길(각 1만원), 윤영섭(1만3천원), 송진수
김석조(각 5천원), 송영순, 최성진(각 2천원)
 6. **판공성사**: 12월 19일부터 판공일시
가정방문시 성사표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 **지난주 불현금: 34,700원**

복자

주임 신부 김 중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전화 ②5238

1. **대축일**! 12월 8일(금) 성모의 원죄없으신 잉태,
미사…저녁 7시 30분
2. **가을 판공성사**: 시간-오전 10~12시, 오후3시~5시
12월 5일(화)-다가동·태평동, 6일(수)-중앙동·
교사동·진북동, 7일(목)-완산동·화산동·기타,
9일-10일(토·일) 학생, 직정인 미사 전후
※ 타당한 준비와 의무금(교무금)을 준비합니다